



## 유럽, 금융시장 불안 증대

이정환 선임연구원

-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, 유럽 부채위기 전파 가능성 증대로 국제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자 G7과 G20은 공조체제를 형성하겠다고 밝혔으며, 유럽중앙은행(ECB)은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를 매입하기로 함.
  -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수익률은 높은 채무비율과 더딘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8월 첫째 주 6% 이상으로 치솟음.
  - ECB 총재는 국채매입이 중앙은행의 직무에서 벗어난다는 비판에 대해 금융시장 혼란으로 금리 정책의 효과가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국채매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함.
  - 그간 국채매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던 독일과 프랑스가 찬성함으로써 국채매입이 가능해졌으며,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추가적인 재정긴축 계획이 발표되면서 가속화됨.
    - 이탈리아는 재정긴축을 1년 앞당긴 201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, 스페인은 공공부문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49억 유로의 추가 세수 확보 방안을 제시함.
- ECB의 국채매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 과감한 매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는 가운데,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에 대한 ECB의 국채매입 규모는 100억 유로가 될 것으로 추정됨.
  - Societe Generale은 ECB의 국채매입 규모는 100억 유로 이상이 되며, 이 중에서 이탈리아의 국채매입 비중은 크다고 밝힘.
- 이러한 ECB의 노력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수익률은 하락한 후 안정화됨.
  - ECB가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를 20억 유로 가깝게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6%를 상회하던 이들 국가의 국채수익률은 5%대까지 하락함.

- 8월 9일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전일대비 82bp 하락한 5.26%를 기록하여 유로화 도입 이래 최대 하락폭을 시현함.
-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같은 기간 중 88bp 하락한 5.16%를 기록함.

■ 그러나 미 연준의 제로금리 소식에 급등했던 유럽 증시는 프랑스의 국가신용 등급이 강등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급락함.

- 그리스에서 시작된 재정위기가 스페인, 이탈리아로 확산된 것에 이어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까지 강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.
  -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소문에 불안해하던 투자자들은 프랑스 은행들의 그리스, 이탈리아, 스페인 국채 보유 비중이 크다는 소식에 주식 투매 양상을 보임.
  - 프랑스 은행들의 이탈리아 국채 보유 규모는 3억 5,000만 유로인 것으로 알려짐.
- 여기에 향후 2년간 미국의 경기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미 연준의 언급과 프랑스 경제성장률의 급격한 둔화 소식(1/4분기 0.9% → 2/4분기 0.2%)이 주식시장 급락을 부추김.
- S&P, 무디스, 피치 등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현재의 AAA로 유지한다고 밝혔지만, 프랑스 은행 주들이 10% 넘게 떨어지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임.
  - 프랑스 CAC 40 지수는 5.45% 하락, 독일 DAX 30 지수는 5.13% 하락, 이탈리아 증시는 6.65% 하락, 스페인 증시는 5.49% 하락, 영국 FTSE 100 지수는 3.05% 하락함.

(Wall Street Journal, Financial Times 등 8/9, 8/10)